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9월 24일 (제91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무임승차는 No!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나타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외국에서 공부하던 학생도, 사업가도, 심지어 외국에서 태어난 2세들도 본국으로 속속 입국한다. 나라를 위해 싸우고 투쟁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 이스라엘이 아랍 강대국 사이에서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사는 이유다.

요즘 한반도 상황이 좋지 않다. 전쟁 소문이 자자하다. 그런데 좀 배운 사람, 좀 있는 사람, 권력 좀 있다는 사람들이 여차하면 외국으로 뜰 준비를 하고 있단다. 나쁜 사람들이다. 나라가 어찌 되든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은 세월호 선장이나 뭐가 다를까. 총칼을 들어야만 애국자가 아니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최고의 애국자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야 하지 않겠는가. 10월 2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되는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참석하여 기도해야 한다. 뱃속에 아이를 임신한 자도, 노인도 와야 한다. 와서 하나님께 ‘이 아이가 전쟁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인들도 후손들을 위해 눈물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

무임승차는 안 된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된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이던가. 모처럼의 긴 연휴인 것을 안다. 그러나 이번 연휴를 반납하고 기도하면 장차 더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나라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캄캄하고, 물이 끓기 전이 가장 시끄러운 법. 주권자이신 하나님님이 이 나라를 도우사, 피한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이 곧 도래할 것이다. 그 날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자. 10월 2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꼭 만나자!



희생이 없이는 승리도 없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역사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1세기만을 뒤돌아 보아도 일제식민치하, 한국전쟁, 월남전 등에 술했던 젊음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피 흘리며 스러져갔고, 한국전쟁 당시 UN연합군으로 참가한 세계 16개국의 젊음들 또한 오직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 이름조차 알지 못하던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산화했다. 또한 산업화, 근대화를 위해 참고 인내하며 헌신했던 시간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젊음들, 그 피와 땀과 눈물로 점철된 처절한 희생의 역사 위에 오늘의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이

해냈다.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지 아예 승객들의 신상을 탈탈 털고 있었다. 그때는 짜증도 나고 열화가 치밀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Jerusalem)에 들어가 여전히 무슬림의 사원으로 쓰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에서 토라를 읽으며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는 팔레스타인(Palestine) 학생들 등등, 그 작은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나라를 잃은 지 거의 2천년 만에 독립한 그들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었다. 왜 그들이 자국이 위태로우면 전 세계에서 학업이나 생업을 뒤로 한 채 달려와 국토방위에 힘을 결집하는지, 외국인들의 입국심사에 왜 그토록

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 재앙 속에 무슨 내일의 희망과 젊음의 특권을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과 비극적인 죽음의 공포만 있을 뿐이다. 희생이 없이는 결코 승리도 없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고 서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젊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투어냈다. 오늘의 기성세대들이 그 무엇보다 국가안보를 제 1순위에 두는 이유도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자유요, 평화이기 때문이다. 이 번영 위에 자유를 구가하는 우리 후손들이 세대를 이어 살아갈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란 재앙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Israel)을 방문했다가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다. 우크라이나(Ukraine) 오데사(Odessa) 집회를 마치고 오데사 공항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Tel Aviv) 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게이트에 섰는데, 자국영토도 아닌 제3국 공항이건만 이스라엘 보안관리가 직접 나와 외국인들이 자국행 비행기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매우 엄격한 심사를

철저하게 임하는지 알 수 있었다. 수천 년 동안 타국을 떠돌며 온갖 멸시를 당했고, 2차 대전에는 600만이 몰살한 홀로코스트(Holocaust)를 넘어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나라이다. 또한 적대적인 수역의 중동 무슬림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에 그들이 얼마나 국가안보에 절박할 수밖에 없는지 절감하게 되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결코 미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9차에 걸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지속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젊은 후손들에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함이다. 전쟁은 일체의 희망을 앗아가는 재앙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도 내전에 휩싸여 민족적 대재앙에 신음하고 있는 시리아(Syria) 난민

여기에 더욱 고무적인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더 열정적으로 앞장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긴 연휴에 여행을 목적으로 모아두었던 통장을 털어 기도성회를 위한 헌물로 드리고, 젊은이들이 뜻을 모아 태극기며 물병을 수만 개씩 제공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다. 국가를 위한 일에 이념이 어디 있고, 지역이 어디 있고, 세대가, 계층이 어디 있으며 너와 내가 어디 있는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가,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10.2(월) 오후3시, 서울시청광장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삿7:1~7)



두려움은 무지의 산물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상대를 모르면 두려워하고 그 결과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게 없으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알아야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를 모르니까 외국인만 보면 도망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면 우리가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자신감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기거하고 있는 도단에 아람군대가 쳐들어와 완전 포위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알게 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 사환의 영안을 여니 거기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엘리사가 기도하니 아람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진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인식(認識)의 변화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곡물과 각종 과실을 침탈해갔고, 양과 소와 나귀 등 모든 소유물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 자신들의 산업을 모조리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고, 급기야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하여 굴을 파거나 산성을 쌓아 생명을 보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 기드온을 부르셨고, 군대를 조직하게 하십니다. 그 때 모인 사람이 3만 2천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중 300명만을 차출하여 정예부대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째,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운 사사로 인정했다면 당연히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366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

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그래서 2만 2천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삿7:1~8). 하나님은 그들도 많다 하시며 감군명령을 내리십니다.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상황도 시국도 모르고 타성에 젖은 자들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는 ‘시세를 아는 자’라야 통솔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처럼 서서 물을 손으로 훔아먹는 3백 명만을 차출, 그들을 전쟁에 투입시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3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은 미약하나 하나님이 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았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로 세웠을 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삿6:13~15)라고 손사래를 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양털로 두 번이나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300명의 군대를 조직했을 때도 기드온은 과연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 두려움을 떨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하니 모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낼 사람을 보내라고, 입이 둔한 나 말고 유능

한 사람을 택하라고 누누이 고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가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습니까? 감심장제를 복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출애굽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4:18). 하나님

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절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 하나님을 본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무엇을 주시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까?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길이 좀 막히면 겁에 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향하여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렘29:11). 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 주시는 분,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인식은 알(認), 알(識)으로, 제대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6:3).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으로 암울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장거리미사일을 쏘고 있고, 미국에서는 선제공격을 운운하는 등 참으로 두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 인식이 바뀌면 세상이 보인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나라가,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와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렘4:1~2). 그래서 우리가 10월 2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나라를 용서해달라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우리 교단이 앞장서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이 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미국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손에 쥔 핵탄두 단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분은 사랑이신지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10월 2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속히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꿈꾸는 듯이 찾아올 벅찬 그 날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충심교회

제9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어린 시절부터 뻗속 깊이 불려오던 노래, 나이 들어서 다시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것도 피한방울 없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달라고 외치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 속에 소망을 주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통일을 주심이 분명합니다.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도성회를 계속 하시겠다는 목사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고 가히 측량치 못할 주의 마음을 기록해놓았습니다. 이처럼 누가 목사님 마음을 알고, 누가 그 마음을 알아 모사가 되겠습니까? 여기 한 여자 집사님이 조금이나마 깨달았다고 제게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무뎠던 더위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봅니다. 누구라도 가을이 오는구나 알 수 있도록 바람이 가을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키네요.
교구 전도사님께서 철야예배를 마치고 9월 1일부터 작정기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혼잣말처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평상시 하는 기도로는 안 되는데 뭔가가 더해져야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구나, 전도사님들은 기도도 더 특출나게 드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

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전쟁의 비참함이 몸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8차까지 평화통일 집회를 참석하면서 그야말로 의미도 모르고 참석만 했구나 하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잣더미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며 눈이 짓무르도록 울면서 매달린들 무슨 소용이 있나. 비참한 전쟁 일어나기 전에 막아라, 내 자식 잃고 부모 잃는 문제가 아니요 절기도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비참함이 오기 전에 눈이 짓무르도록 기도해라. 너희 목사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전쟁 없는 평화통일, 폐허더미 속에서가 아닌 평화의 때에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울어라...’
독촉이 아닌 부탁으로 말씀하셔서 왜 이리 맘이 찡한지, 전도사님 말씀처럼 늘 하던 것이 아니요 보태보자는 결심이 섰습니다. 특별한 작정기도에 기도를 보태야겠다는 생각에 ‘금식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아서 첫날부터 금식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되어 무척이나 좋습니다. 마음씨가 참 좋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평화통일을 이루시려나봅니다. 8차 동안 늘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주셨을 텐데 이 미련한 자 별때처럼 왔다갔다만 한 것 같아 죄송하고 죄송하네요. 무턱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시작하는 이 9차 기도성회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건강하세요 목사님.”

이시대 목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꿈

인류 역사는 곧 꿈의 역사다.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는 열망 끝에 비행기가 발명되었고, ‘밤도 낮처럼 환할 수 없을 까’라는 고민에서 전구가 탄생했다. 또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잡고 웃을 수 있는 날’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흑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권리 신장이 가능했다. 어떤 상상은 허무맹랑하거나 실현 불가능해 보였고, 또 어떤 꿈들은 무모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장구한 인류역사 가운데 이런 굵직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것은 꿈과 상상의 끈을 놓지 않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 대개 나이가 들어가거나 현실에 매몰되면, 이전에 품었던 원대한 꿈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와 환경을 초월하여 꿈꾸고 또 이루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백세나 되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깊은 노년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더니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보았고, 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고 했다. 꿈쟁이 요

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비아냥거렸지만 그 꿈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이방 나라 이집트의 총리로까지 높여주셨다. 그 밖에 지붕을 뚫어서라도 친구를 고치 고자 했던 중풍병자의 네 친구,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 확신한 혈투중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꿈과 상상력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꿈 위에 평화통일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원대한 꿈을 더하셨다. ‘언제 이루어지겠냐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힘이 있냐’고 근심, 염려할 필요 없다.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수고로 물주고 거름 주는 일이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고 수고하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기억하시게 하자. 꿈이 있는 자는 낙망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멈추지 않는다.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잉태한 개인과 단체, 기업, 나라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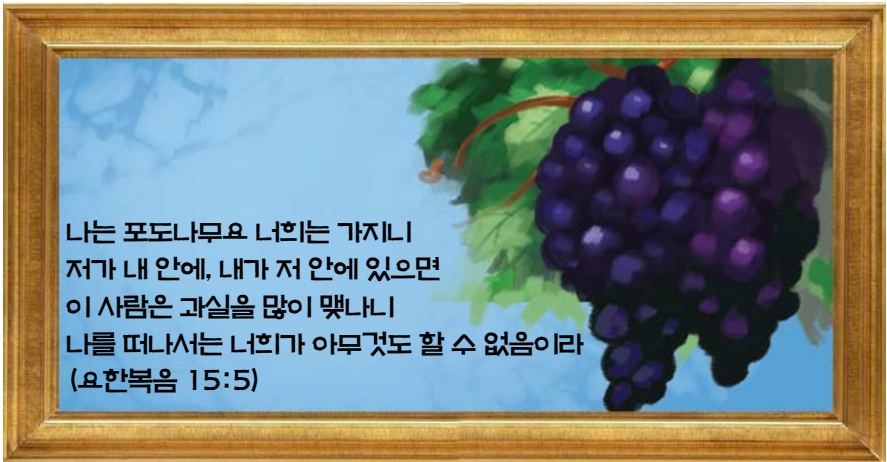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전도는 향기다

전도는 향기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우리 형은 수천 명을 주의 전으로 인도했다. 그리 달변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런 큰 역사를 이뤘을까. 삶의 향기가 있었다. 그 삶을 본받고 싶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몰려온 것이다. 사론의 꽃과 같이 향기 있는 삶 속에서 이룬 것이다.
샤론 평야는 척박한 땅이라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이다. 그런 곳에서 아름다운 샤론의 꽃이 만개한다. 진흙 구덩이에서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이 피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어둡고 더럽고 오염된 세상에서 주께서 향기를 뿜으시며 피어나심을 비유한다. 삶의 향기가 없으면서 세상 사람들, 세상 것들 운운하며 정죄하는 자들! 정작 그런 자들은 세상사람 아닌가. 사랑이 없는 제사장보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사마리아인을 하나님은 원하신

다. 선을 행하는 자를 원하신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선하게 살라라. 나의 자비함을 세상에 알리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물댄 동산처럼 영육이 풍족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샤론의 꽃처럼 세상에 향기를 전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자. 샤론의 꽃 예수님을 닮아 선함과 아름다움과 향기를 모두 갖춘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 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가.
전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한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다.
이광주 전도사
leekjlkj@naver.com



고지를 향하여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시청광장에서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에 진행될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앞두고 여러 영상자료를 찾는 중, ‘고지전(2011년 작)’이라는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다. 영화 ‘고지전’은 한국전쟁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되기까지 한국전쟁 3년간의 총 사망자 수는 400만 명, 그중 1951년 1·4 휴전 이전 사망자 수가 100만 명, 나머지 300만 명은 1951년 6월 이후 2년 2개월의 휴전협상 기간 중에 3·8선 중심의 중부전선에서 치열한 남북 고지쟁탈전으로 죽어 갔다. 실제 이 영화는 남북이 휴전협정을 맺기 전 1㎢의 영토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처절하게 혈투를 벌인 백마고지전투를 다루고 있다. 1952년 10월 6일부터 철원 북방 395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한국군 제9보병사단과 중공군 제38군 사이의 전투에서 10일간 24차례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혈전 끝에 굳건히 지켜낸 사건이다. 비록 승전은 했지만 남북이 고지를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그 참상은 참으로 아프고 비극적이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나의 뇌리 속에 박힌 생각은 2017년 오늘, 여전히 고통스러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고지가 코앞이라는 확신이었다. 북한은 1953년 7월 휴전 이후 1994년까지 40여 년간 43만여 회에 걸쳐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1994년 이후에는 위반 건수를 집계하지 않았지만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에 연이은 핵 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우리 대한민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및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도발은 지금 극에 달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의 고지는 코앞에 있다. 특히 우리 예수중심교단이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준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수록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는 희망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간다. 지난 주 다시 찾은 현충원,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한 수많은 선열들 앞에서 다짐하듯 선포하였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은 없습니다. 영원히...’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가자! 서울시청광장으로!!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

10. 2(월) 오후3시
서울시청광장

주최: 예수중심교회
문의: 02.533.9191

